

경북권 통합 1년 유예-감사위원 6명 선출

15일, 금속노조 44차 대의원대회 속회·쟁의적립금 일부, 교육연수원 기금 전용 결정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경북 지부 통합을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연기하는 규약 개정건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 여섯 명을 선출했다. 또 쟁의적립금 중 50억 원을 교육연수원 건립기금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4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속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지난해 12월 4일 휴회한 4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었다. 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건립 관련 건 ▲조합 감사위원 선출 건 ▲규약 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심의 의결했다.

15일 속개한 4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총원 869명 중 미선출 130명, 사퇴 44명이 발생해, 재석 대의원 수 685명을 기록했다. 446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 문재인 정부의 허상이 벗겨지려는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3월과 4월이 거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며 “ 일방 구조조정 중단,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약법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라는 요구를 투쟁으로 돌파 할 각오를 오늘부터 다지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5년 안건 교육연수원 건립 관련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연수원 건립 추진과정과 예상 운영비용, 건설에 필요한 소요비용, 건설 일정 등에 관해 질문했다. 또 쟁의적립금을 연수원 건설비용으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생길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안건을 꼼꼼히 살폈다.

대의원들은 질의응답 후 ▲특수목적기금을 교육원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 ▲쟁의적립금 50억 원을 교육연수원 건립 기금으로 전용하는 안에 관해 표결을 벌였다. 교육연수원 관련 건은 표결결과 재석 446명 중 67명(15%)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후 찬성 의견을 물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됐다.

경북권 통합 관련 규약개정안 통과

노조 대의원들은 7번 안건으로 경북권지부 통합과 관련한 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3일에 연 38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10기부터 구미, 포항, 경주지부를 통합해 경북지부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이에 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노조는 ▲경북권 통합을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유예한다. 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는 통합 관련한 안을 마련해 대의원대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안을 상정했다.

규약개정 건은 336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350표, 반대 46표로 88.4%의 득표율로 통과됐다.

노조 감사위원 6명 선출

규약 개정안 찬반투표와 함께 조합 감사위원 선거 투표도 함께 진행했다.

대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기호1번 박민구 후보(71.2%), 기호2번 김흥규 후보(73.2%), 기호3번 노한균 후보(70.5%), 기호4번 금재호 후보(75.3%), 기호5번 허준 후보(66.7%), 기호 6번 전성중 후보(71%)가 당선됐다. 기호7번 강정규 후보는 56.8%의 득표율을 얻어 고배를 마셨다.

노조 대의원들은 2018년 투쟁에 나서는 각 오를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4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쳤다.

호황기에 배당 잔치, 불황기에 해고 칼날

중형조선소 올바른 생존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성동조선해양, STX조선지회 생존대책 마련 촉구

“ 조선소 노동자를 버리는 정부 정책은 조선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는 1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형조선소 올바른 생존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시급히 조선산업 살리기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와 STX조선지회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재평가 이후로 중형조선소 회생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조선소 노동자들은 말라 죽는다”라며 조선업 회생 대책 수립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지회는 “정부가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조선산업 위기를 근본부터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STX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정부는 조선산업의 위기는 자본의 과잉 중복투자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채권단은 인력과 설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선산업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흑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수석부지회장은 “기



업들은 조선산업 호황기에 고액배당만 하고 불황을 대비한 기술투자는 하지 않았다.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라고 꼬집었다.

박경태 성동조선해양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성동조선은 정부 결단 지연으로 수주물량 건조 착수 연기를 요청받고, 수주가 진행 중인 12척조차 선주들이 발을 빼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박경태 수석부지회장은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 상황판에 우리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표시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 참가한 조합원들은 ‘조선업 노동자 다 죽는다.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즉각 마련하라’, ‘조선업 반드시 살리겠다는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행하라’ 등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장민수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은 청와대 앞에서 이어간 결의대회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중형조선소 회생 대책은 하루가 급한데 기업재평가 이후로 미룬다는 얘기는 우리 조선노동자는 다 죽으라는 소리이다”라며 분노했다.

이학봉 STX조선지회 조합원은 “조선소에 입사해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묵묵히 해왔다. 현장에서 일할 시간에 청와대 앞에 와 있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 땀 흘려 일하는 떳떳한 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다.

작업복을 입고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중형조선소를 살려내라’라고 쓴 하얀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조선소에서 일할 날이 오길 기원했다.

비정규직 확대 맞서 현대비엔지스틸지회장 단식투쟁

11일로 단식 일주일째...사측, 단협 어기며 크레인 작업 외주화 시도

장기성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비엔지스틸 지회장이 지난 1월 5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현대비엔지스틸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양단협 교섭에 돌입했지만 ▲임금인상 ▲크레인 외주화 거부 ▲부당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쟁점사항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회는 지난 1월 9일까지 전면파업 10일 차를 전개하고, 현재는

순환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비엔지스틸지회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크레인 작업 외주화다. 사측은 열 명이 일하던 크레인부서에 정년퇴직으로 두 명의 감소 인원이 발생하자 이 자리를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의 이 주장은 단협 합의 위반이다. 사측은 지난 2010년 협약서를 통해 ‘기계 공정

라인에 대하여 협력회를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다. 또 2012년 합의서를 통해 ‘긴박한 경영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정협력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 2105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합의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장기성 지회장의 단식투쟁을 엄호하고, 논의를 통해 지부 집회와 여론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